수주 직감, 그리고 '궁즉통(窮卽通)'

미 육군공병단(COE)이 발주하는 공사의 철골 제작·납품 부문에 대한 인콰이어리를 접수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는 직감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가장 까다롭다는 COE 발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긴장과 흥분을 안고 견적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의 가격 경쟁력은 수주 확률 100%의 확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 문제는 COE 발주 공사 실적이 전무했던 것에서 발생하였다.

때로는 어떤 일의 성패에 직감이 따른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우리 회사의 미국 내 파트너인 PERT 건설을 통해 미국 육군공병단(COE)에서 발주하는 Bassett Hospital Replacement 공사 관련 철골 제작·납품 부분에 대한 인콰이어리를 접수·검토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이 프로젝트는 국내 업체끼리의 과당 경쟁만 없고 1차 납기만 해결된다면 분명 수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박승
풍림산업 철구사업부 상무

미국 서부 지역 철골 시장의 경쟁력은 가격과 현장 도착도 기준 1차 납기의 준수 여부로 판가름된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 현장의 위치가 알래스카 페어뱅크 앵커리지에서 365마일이나 떨어져 있는데다 기후 관계로 제한된 기간(4 9월) 내에 설치를 해야 하는 등 매우 열악한 공사 환경이었다. 또한 미국 내 제작사의 경우 알래스카까지의 운송 방법이 서부 지역 특정 항구까지의 육송(陸送), 알래스카 앵커리지항까지의 해송(海送) 등이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국내 업체로서는 상대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해상 운송 기간 약 20일(우리나라 항구에서 미 서부 지역 항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격 경쟁력만 확보할 수 있다면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직감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우리나라 어느 철골 제작 회사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검사가 까다롭다는 미국 COE 발주 공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가벼운 긴장과 흥분 속에서 견적 작업을 진행했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직접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마침내 2001년 12월 6일 입찰 참여를 위해 LA에 도착했다.

미국 내 파트너인 PERT 건설에서 수집한 입찰 관련 정보 확인 및 검토 작업을 하면서 입찰 참여 원도급 업체(general contractor)가 3개 사로 압축되었음을 알고 한 업체에만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 입찰 참여 3개 업체 모두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우리 제안서를 접수한 3개 업체의 반응은 놀라웠고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리의 예상은 적중했다.

미국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협력 업체(sub-contractor)를 반드시 입찰 내용에 명시(우리나라 부대입찰제도와 유사)하도록 되어 있다. 입찰 직전, 입찰 참여 3개 업체 모두가 철골 제작·납품 협력 업체로 우리 회사를 명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낙찰이 되든지 철골 제작사로 미 COE측의 승인만 받아낸다면 수주 확률은 100%인 것을 확신하고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 달 보름의 긴 여정 동안 가슴 졸이는 일도 많았지만 너무 쉽게 성패가 갈리는 것 같아 조금은 불안했는데, 지난 2월 COE측 제작사로서의 서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점이 미국 공사 실적(특히 COE 발주 공사에 대한 실적)이었다. 당시로서는 COE 발주 공사는 물론 현재 수행 중인 미국 연방 법원청사(US Courthouse)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미국 공사 실적이 전무한 우리 회사는 분명 자격 미달이었다. 절망적이었다. PERT 건설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였으나 없는 실적을 만들 수는 없으니, 두 손을 모두 놓아버린 상태로 우리의 두 번째 미국 철골 공사는 멀어져가고 있었다.

'궁즉통(窮卽通)'이라, 해결의 실마리는 미 연방 법원청사 프로젝트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미 연방 법원청사 공사 수주 과정에서 4박 5일 동안 발주처인 미 연방 정부 산하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측의 Audit(2001. 6)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검사관이 미 연방 정부에 Audit 결과를 보고하였을 것이라는 데 착안, 그 자료를 구해 제출해보자는 시나리오였다.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그 보고 자료를 입수, 수주 경쟁에 참여한 3개 업체를 통해 COE측에 제출했고 제출 3일 후 마침내 제작사로서의 승인을 득할 수 있었다.

당초의 직감대로 원도급 업체의 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는 올 2월 4,500톤 규모(약 700만 달러)의 철골 제작 및 납품 공사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물론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한 여러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